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역 양돈농가 선도하는

아 산 지 부

- 취재 : 이 병 석 -

양돈협회 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국내의 양돈업에 종사하는 모든 양돈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에 대하여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양돈협회는 국내 양돈인들과 생사교락을 같이 하며,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지난 7월 1일부로 전격 실시된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적용은 국내 양돈업계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중앙회와 도협의회, 그리고 지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17년만에 일구어낸 단결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다.

본회 아산지부(지부장 : 김명식)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부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협회의 본 업무와 지역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아산지부는 지난 83년 처음(초대 지부장 : 광용승) 지부로 결성되어 현재까지 지역 양돈인들의 구심체로써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 4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지부장 외에 부지부장, 총무, 감사 2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아산시내의 각 면 단위로 운영위원을 1명씩 두었는데, 운영위원은 총 9명이 그 지역의 활성화와 지부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아산지부 김명식 지부장(우측)과 조병목 총무, 김갑숙씨의 모습(지부내 양돈방역사업단 사무실 앞에서)

돼지 질병방역사업단 사업 전개

아산지부는 전체 회원이 대전·충남 양돈조합 축산계에 지부명의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돼지출하와 사료매입, 약품구입 등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환급 수수료를 월 평균 25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특히 아산지부는 2년전부터 돼지 질병방역사업단 사업을 준비하여 지난 5월 26일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방역사업단(양돈실무 : 김명식 지부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진행이 더딘 관계로 지부에서는 우선 방역사업단을 통하여 백신용역사업과 기본적인 사양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 위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농장을 대상으로 콜레라, 단독, TGE 등의 백신을 현재 가입되어 있는 25개 농가를 우선으로 실시해 주고 있었다. 각 농장에서는 백신용역을 받는 비용으로 모든 두당 월 3,000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협회 주관 체육대회 통해 양돈농가의 결집 유도

아산지부는 아산 시내의 모든 양돈농가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협회를 구심체로 양돈인들을 결집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아산지부는 지난 '96년 11월에 아산시내의 모든 양돈인들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는데 아산시 각계 관계 인사들과 양돈농가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여 아산 시내의 양돈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지부회원이 배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 체육대회는 올해에도 11월달에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매달 월례회시 질병이나 사양 등에 관한 크고 작은 세미나를 병행하여 지부 회원들이 정 보고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이후에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대대적으로 실시된 이후의 농가에서의 소득세 신고 등 세무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세무사나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9월중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농가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회원뿐만이 아닌 아산시내의 모든 양돈인들이 참여하는 야유회를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8월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야유회를 가졌었다.

또한 매년 12월에 송년의 밤을 개최하여 그 해의 지부사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다음 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보다 발전하는 지부가 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와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아산지역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양돈여건이 계속적으로 불리해지고는 있지만 아산시내의 축산과, 환경과, 가축위생시험소 등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뇨처리에 대하여는 시정부 차원으로는 99년말 완공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시청 축산과에서는 각 농장에 대한 축분비료시설 등의 보조와 축산 공해방지 시범마을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산지부는 아산시 지역내 아람, 대신 영농조합 등 영농조합 결성으로 인한 회원들의 지부 불참 등 지부 와해현상이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김명식 지부장을 중심으로 아산시 전체 양돈농가 참여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모든 양돈인들을 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서술한 시정부의 관계 공무원들과도 아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 지부가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었다.

아산지부 김명식 지부장은 앞으로의 지부운영에 관한 필자의 질문에 대하여는 "면 단위로 분포되어 있는 운영위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부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며, 지부 사업도 더욱 더 분야별로 활성화시켜 회원들이 지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부를 결속하고 힘을 모으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